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에 의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이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에서 ‘인간의 삶을 바꾸고 대체해 주는 것’으로 바뀌는 데에 50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 예측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변화를 더 이상 간과하면 안되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가야 한다. 그에 따라 우리 5조는 다가오는 미래의 긍정적인 부분과 위험이 되는 부분에 대해 토론하고 다음의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1.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포털사이트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가 관심 있을 정보들을 파악하고 제공한다. 그에 따라 소비자들은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정보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아도 되며 필요한 정보를 단시간에 많은 양으로 습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의료 분야의 인공지능인 ‘닥터 왓슨’과 요식업계의 인공지능인 ‘쉐프 왓슨’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결합의 좋은 예이다. 수만 건의 전문 서적과 임상결과를 학습한 닥터 왓슨은 오진의 확률을 낮춰주고, 1만여 개의 레시피를 학습한 쉐프 왓슨은 각 소비자에게 알맞은 레시피를 추천해 준다. 미래에 빅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보다 일상화 되면 일의 효율성이 올라가고 각각의 상황에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줄 것이다. 특히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의술 분야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수명을 늘려주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
2. 인간의 노동을 인공지능 혹은 로봇이 대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보다 가치 있는 활동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상위계층 혹은 배움의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하위계층의 사람들보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었고, 힘들거나 불쾌한 노동은 주로 하위계층의 사람들의 몫이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노동을 대신해 준다면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며,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정부는 그 동안 수많은 제도를 수정해가며 각 계층의 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해 왔는데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줄 것이라 예상한다. 또한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치 있는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면 각자가 느끼는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3. 인공지능이 사람과 같은 노동을 하고, 인간의 특권이라고 생각한 창작분야에 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공지능이 사람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직접 짠 알고리즘에 따라서 행동하며, 그렇기 때문에 각 인공지능에는 개발자의 관념이 깃든다. 인공지능이 거의 개발자의 분신과 같아지면서, 개발자는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에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주행자동차가 차 사고를 마주했을 때 탑승자를 위한 선택을 할지 보행자를 위한 선택을 할지는 중요한 윤리적 이슈거리이다. 만약 개발자가 공리주의에 의의를 둔다면 적은 피해를 내는 선택을 할 것이고 칸트의 가치관에 의의를 둔다면 아무 선택도 하지 않고 자동차가 그대로 움직이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올바르지 않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 혹은 단체가 테러 혹은 전쟁 등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된다면 인공지능은 대량 살상무기로 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인지해야 한다.
4. 기술의 발전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야기한다. 이미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정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있다. 내가 하는 모든 활동들이 데이터가 되어 축적되고 기업들의 이익 창출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도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큰 이슈거리이다. 드론은 사람이 갈 수 없는 다양한 지역을 광범위하게 찍어 보여주지만 그에 따라 국가들은 자신들의 지형이 낱낱이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집에 설치된 CCTV들이 해킹 당해 큰 문제가 된 적도 있었다. 후에 인간의 대부분의 삶이 기계로 대체됨에 따라 그만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또한 심화될 것이다. 더불어 해킹에 따른 범죄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스마트홈이나 자동자율주행 자동차 등은 해킹에 노출되기 쉬운데, 이를 해킹해 범죄에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기술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 면에 치우쳐서 색안경을 끼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 긍정적인 부분은 확실히 부각해 더 큰 이익을 창출하도록 하되, 문제가 되는 쟁점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각각의 문제점에 따른 해결책도 찾아야 하지만,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준비 또한 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함에 따라 우리는 경제적인 이익과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어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완전히 대체하기 전 과도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다. 또한 직업과 노동이 사라지게 되어 사람들이 나태해질 가능성도 있다. 인공지능 및 기술을 활용해 생길 긍정적인 면을 바라봄과 동시에 발생할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보다 차근차근 나아가야 한다.